

‘제15회 아트광주24’ 10~13일 김대중컨벤션센터서 개최



제15회 광주아트페어가 10일~13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다. 지난해 펼쳐진 아트광주23 모습. <광주문화재단 제공>



이우환 작 'With Winds'

광주일보 문화예술 매거진 10월호

연남향



전라도 사람들의 잡지 ‘예향’ 창간 40주년 여정 돌아보기

광주일보가 발행하는 문화예술매거진 ‘예향’이 창간 40주년을 맞았다. 10월호 특집에서는 1984년 10월 ‘전라도의 맛과 얼을 지켜나갈 전라도 사람들의 잡지’를 표방하며 첫 걸음을 내딛은 ‘예향’의 여정(旅程)을 되돌아본다.

‘예향’이 만난 사회명사와 아티스트들을 비롯해 예향(藝響)에서 아시아문화중심도시로 변모한 광주의 문화 콘텐츠, 표지본 ‘예향의 어제와 오늘’을 함께 소개한다.

10월호(통권 348호) 표지 이미지는 창간 40주년을 기념해 책갈피와 숫자 ‘40’을 결합해 숫자 그래픽으로 표현했다.

‘예향 초대석’은 사람들의 마음에 등불을 밝혀주는 정신과 전문의 오은영 박사와의 따뜻한 이야기를 전한다. 20여 년 전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를 통해 사람들에게 각인된 오은영 박사는 ‘국민 멘토’, ‘고민 해결사’로 불린다. TV 프로그램으로, 강연으로, 토크 콘서트로, 책으로 사람들을 만나며 긍정의 에너지를 전하고 있는 그를 만나 삶의 여정과 세상사는 데 힘이 될 이야기를 들었다.

10월호 기획으로 준비한 콘텐츠는 올해로 30주년을 맞은 ‘광주비엔날레’다. 지난 9월 6일 ‘판소리, 모두의 울림’을 주제로 개막한 2024 광주비엔날레가 도시 곳곳을 화려한 미술의 향연으로 물들이고 있다.

30주년 광주비엔날레는 본전을 비롯해 역대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31개국의 파빌리온과 광주미디어아트플랫폼(G.MAP)의 특별 기념전까지 아우르며 그 어느 해보다 풍성하다. 핵심 주제 ‘인류세’로 보는 화제의 작품과 파빌리온 현장 등을 화보와 함께 소개한다.

예향 40주년과 함께하는 ‘남도투어’는 전남 곳곳에서 펼쳐지고 있는 가을축제로 안내한다. 맨드라미, 국화, 백일홍 등 가을꽃을 테마로 한 꽃 축제가 곳곳에서 개최되고 명랑대접축제 등 역사와 문화를 주제로 하는 문화축제도 다채롭게 펼쳐진다. 시월의 어느 멋진 날, 낭만 가득한 전남에서 펼쳐지는 축제들을 소개한다.

‘맛과 함께, 남도유람’은 정남진 장흥의 가을 향기를 따라 떠나본다. ‘문림의향(文林義鄕)’ 장흥의 대표 여행자인 정남진 펠릭스 우드랜드와 정남진 정광대, 천관산역새, 선학동 메밀밭을 찾는 이들이 많다. 득량반 바다와 천관산-계암산을 품고 있는 장흥에는 송기숙·한승원·이승우 작가와 이대훈 시인 등 문학의 향기도 짙다.

한국학호남진흥원과 공동 기획한 ‘호남서화가 열전’ 일곱 번째 인물 육사배기가락이 떠올라는 남승 하건의 산수화, 은둔하던 ‘절의 선비’ 설강 유사가 건립한 광주 호가정, ‘배국남의 대중문화 X파일’ 연기 경력 69년, 90세 최고령 현역 배우 이순재, KIA타이거즈 경기 시구를 위해 고향을 찾은 ‘소미더너 10’ 우승자인 레퍼 조광일과의 인터뷰도 흥미롭다.

/이보람 기자 boram@kwangju.co.kr

관람부터 구입까지... 함께하는 미술축제

‘함께하는 미술시장, 사랑받는 미술축제’. 미술시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추세와 맞물려 아트페어는 작품 구입 및 다양한 작품을 접할 수 있는 흥미로운 문화현장이다. 미술을 잘 모르는 이들도 즐기며 알아갈 수 있는 기회이다.

제15회 광주아트페어(예술감독 윤익·아트광주24)가 오는 10일부터 13일까지 4일간 김대중컨벤션센터 A·B·C홀에서 열린다. 주제는 ‘함께하는 미술시장, 사랑받는 미술축제’이며 개막식은 10일 오후 1시.

이번 행사의 특징은 역대 최대규모의 106개 갤러리가 참여하며 청년작가발굴을 목적하는 ‘라이징스타전’이 마련된다는 점이다. 공모를 통해 가능성 있는 젊은 작가를 발굴해 지원하자는 취지다.

또한 지난 9월 펼쳐진 서울의 프리즈와 키아프를 비롯해 현재 진행 중인 광주비엔날레, 부산비엔날레 등 국제적인 미술문화 행사들과 맞물려 국제 미술문화 도시 광주에서 펼쳐진다는 점도 주목된다.

광주문화재단(대표 노희용)이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미술문화 선순환 구조의 활성화와 외에도 생산, 향유, 유통에 초점을 뒀다.

부스는 113개로 구성되며 국내외 갤러리 106개, 특별전 7개로 짜여진다. (96개의 국내 갤러리 부스와 10개의 국외 갤러리 부스)

윤익 예술감독은 30일 기자회견에서 “특별전에 서울 국제조각페스타, 경주 국제아트페어, 전주 아트전 북페스타 등 국내 타 지역 아트페어들이 행사에 참여

106개 갤러리 참여 역대 최대규모 청년작가 발굴·지원 ‘라이징스타전’ 11~13일 VIP 스페셜 프로그램 진행

한다”며 “이들 아트페어는 향후 우리 지역 작가를 초대해 네트워크 형성 및 호남 미술의 역량을 소개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노희용 대표 이사는 “이번 행사가 지역 미술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행사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마음에 드는 작품이 있다면 대작이 아니라도 구매를 고려해보는 것도 어떨까 싶다”고 제안했다.

올해는 모두 10개국 해외 갤러리를 초대해, 작품을 선보이는 ‘해외갤러리 초청전’을 선보인다. 지금까지 베를린, 뉴욕, 바르셀로나, 북경 등은 지역과 교류를 해왔다. 지난해 아트광주 23에 참여한 독일, 미국, 대만, 중국 4대 갤러리(6월~9월)에서 광주 작가 20여 명이 기획전을 진행한 바 있다.

VIP를 위한 스페셜 프로그램도 진행한다. (사전 예약제 및 안내데스크 현장 예약) 홀리데이인 광주 프레지던셜 스위트룸에서 11일~13일 (낮 12시~오후 6시) 펼쳐진다.

10층에 마련된 전시실에서는 모두 13점을 만날 수 있다. 이우환을 비롯해 박서보, 박수근, 정상화, 김홍수, 윤형근, 추사 김정희, 이승조, 김창열, 도상봉 등

한국 근현대미술 컬렉션이 공개된다.

전시와 함께 문화예술 강좌도 펼쳐진다. 11일 오후 3시 이지원 닐 위한 문화예술 공동대표가 ‘10년 뒤 나의 컬렉션 상상하기’를 주제로 강연한다. 이어 ‘살아남은 그림들’(12일 오후 3시, 엄중구 샘터화랑 대표), ‘미술품 구입을 통한 절세전략’(13일 오후 3시, 백석세무사)이 진행된다.

단순한 작품 구매를 넘어 작품 속에 담긴 이야기를 나누는 플랫폼 ‘아트광주 OVR’도 마련돼 있다. ‘작품과 사랑에 빠지다’를 주제로 진행되는 사적인 컬렉션은 작품과의 인연을 함께 공유하는 프로그램이다.

직접 페인팅을 할 수 있는 체험부스도 있다. D-32 체험부스에서는 ‘텍스처 페인팅’, ‘클레이 거울’이 무료로 펼쳐진다. (오전 11시부터 오후 7시, 점심시간 제외)

광주문화재단은 포털사이트인 디어마이광주와 아트광주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해 참여갤러리의 작가와 작품 소개 등을 진행 중이다.

11일 밤에는 아트광주24 조직위 주관 갈라디너를 열고 갤러리 관계자와 작가들이 지역 미술 애호가들과 교류하는 만한 행사가 펼쳐질 예정이다.

한편 김성배 시 문화체육실장은 “아트광주는 미술시장에서 생산자와 소비자의 매개자 역할을 하는 전문화랑들에게 교류의 장을 제공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행사 의미를 밝혔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국경·장르 초월... 초가을밤 음악 축제

‘뎬 뮤직 서밋 인 광주·버스킹 월드컵’ ACC하늘마당, 5·18민주광장 특별무대

“전 세계 음악인이 하나 되는 광주의 음악 축제 현장에서, 심사위원들이 ‘엄선한 작품을 감상하며 스트레스를 풀어버리길 바랍니다.’”

광주동구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문창현)이 ‘아시아 뮤직 서밋 인 광주 컨퍼런스&아시아 쇼케이스(이하 뮤직 서밋)’를 2일까지, ‘제3회 광주 버스킹 월드컵(예술감독 이정현)’을 3~6일 펼친다. 두 행사 모두 ACC 하늘마당 및 5·18민주광장 특별무대 등에서 진행.

먼저 뮤직서밋은 아시아·유럽·남미 등 13개국 음악 축제감독 및 기획자, 음악산업 전문가들이 국내 음악 산업 발전을 고민하는 자리다. 이들은 ‘남아메리카 음악 시장 소개와 한국 음악의 남아메리카 진출 방안’,

‘재즈 어헤드와 유럽 재즈&월드 뮤직 씬’ 등을 주제로 6개 세션에서 발제한다.

지역 내·외 밴드들의 쇼케이스도 볼 수 있다. 지역에서 활동하는 ‘기드온 밴드’를 필두로 ‘초영’, ‘뿔갱스’, ‘달탐’ 등이 2일 무대에 오른다.

3일부터 펼쳐지는 도심형 음악축제 ‘버스킹 월드컵’도 이목을 끈다. 2022년 첫 기획됐으며 올해는 58개국 87팀, 총 2143명이 예선을 거쳤다.

본선에 진출한 32팀이 경연 형태로 공연을 선보일 예정이다. ‘신촌블루스’, ‘몽니’, ‘수오노 다예레’ 등과 지난해 수상팀 ‘김순영 재즈트랩’ 등이 준비한 레퍼토리를 들려준다.

이정현 예술감독은 “중국, 요르단, 스페인, 인도, 세르비아 등 다양한 국가의 아티스트들이 무대에 오르지만 특히 광주에서 활동 중인 예술가들의 무대도 볼 수 있을 것”이라며 “K-POP과 K-컬처 열풍으로 한국음악에 대한 세계인의 관심이 고조되는 상황에, 국경을



지난 1일 전일빌딩 245에서 펼쳐진 국악양상발 매간당의 개막공연 장면.

초월하는 음악 축제를 만들어 나갈 것이다”고 했다. /글·사진=최류빈 기자 rubi@kwangju.co.kr

임수림 창작뮤지컬 ‘악마의 컨텐츠’ 4일 빛고을시민문화관

어느 날 아역배우 출신 소피는 ‘영상 콘테스트’에 도전한다. 그녀는 오디션에서 여러 번 지원하지만, 배역을 얻는 데 번번이 실패하고 만다. 자신을 알아주지 않는 세상을 원망하던 그때, 유튜브 사무소의 대표 마셀이 찾아와 유튜브로 성공하는 방법을 알려주겠다고 한다.

둘은 계약을 체결하고 소피는 1000만 유튜버가 된다. 그러나 즐거움도 잠시, 예상치 못한 스캔들이 번져 감당할 수 없는 ‘악플’ 공격이 시작된다. 소피는 다시 마셀을 찾아가는데..

뮤지컬 창작가 임수림의 창작뮤지컬 ‘악마의 컨텐츠’가 오는 4일 오후 7시 30분 빛고을시민문화관 아트스페이스에서 펼쳐진다. 이번 공연은 ‘창작 뮤지컬 리딩공연’ 형식으로, 대본을 낭독한 뒤 향후 본 공연을 진행하는 형태다.

임 씨는 “타 지역 및 국가 등에서는 ‘리딩 공연’이 포맷으로 자리잡은 경우가 있으나 광주에서는 흔치 않을 것이 사실”이라며 “공연 제작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손실을 줄이는 장점이 있어 메리트가 있는 공연 방식이다”고 했다.

재즈와 클래식, 팝 등 다양한 장르 음악이 접목된 점도 눈길을 끈다. ‘우리 위한 콘테스트’를 비롯해 ‘주인공으로 살고 싶어’, ‘꿈꾸는 마음을 가사에 투사한 ‘워너비’, 현실의 높은 벽을 실감하는 ‘무반영’ 등이 레퍼토리에 있다. 이외 ‘마셀의 제안’, ‘구독 후엔 알립 설정!’, ‘악플세레’, ‘SNS(눈)’ 등 주인공 소피의 감정을 담은 노래들도 울려 퍼진다.

소피 역은 박흥은, 마셀 역은 김민성이 맡았다. 앙상블 역에는 정인호, 김다운, 조연주(각각 구독자 1~3)가 출연할 예정이다.



뮤지컬 ‘악마의 컨텐츠’ 연습 장면. <임수림 제공>

전남대 음악학과에서 작곡을 전공한 임수림은 어린이 뮤지컬 ‘장난감 무상으로 수리해드립니다’ 등을 편·작곡했다. 경기도 능원초 뮤지컬부에 소속돼 작곡하는 한편, 아가펠라, 뮤지컬, 연극 등 예술강사로 현재 지역에서 활동 중이다. 무료 관람. /최류빈 기자 rubi@kwangju.co.kr



인장 교육 장면. <ACC 제공>

아시아 인장문화 ‘전통을 새기다’ ACC, 11월까지 아시아 문화예술교육 체험

지역 외국인 유학생들은 아시아의 문화를 얼마나 알고 있을까. 예술은 낮은 문화권의 삶과 문화를 이해하게 하는 중요한 기제다.

이강현 전당장은 “이번 교육은 인기 지역 외국인 유학생과 가족들이 아시아 문화를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마련됐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전당장 이강현, ACC)이 진행하는 ‘ACC 아시아 문화예술교육 체험 프로그램’이 그것. 교육은 11월까지 지역소재 대학 외국인 유학생과 가족을 대상으로 6회 펼쳐지며, 아시아 문화를 이해하는 기회를 제공하자는 취지로 기획됐다.

이번 교육은 ACC 인기 강좌 ‘아시아를 새기다’로 외국인 유학생들의 정서에 맞게 수정·보완해 운영된다. 아시아 인장문화를 중심으로 나만의 인장을 만들어보으로써 아시아 문화를

친밀하게 경험하자는 것이다. 나아가 아시아인의 삶의 지혜를 토대로 문화 감수성을 함양하 데도 의미가 있다. 이강현 전당장은 “이번 교육은 인기 지역 외국인 유학생에게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면서 “타 문화권에서 생활하는 이들이 ACC가 마련한 다양한 문화예술프로그램을 매개로 배움과 문화적 감수성을 경험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ACC는 지난해 경찰 및 교정 시설과 올해 상반기에는 지역 복지시설을 대상으로 교육을 운영했다. 하반기에는 광주과학기술원(GIST), 동신대, 호남대와 연계해 외국인 유학생과 가족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